

점점 강성해 가는 다윗

성경 사무엘하 5:1-12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하루 되세요.	늦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성해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하늘 위에 주님밖에(은혜의 찬양 452장)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2 아 하나님의 은혜로(찬송가 310장)

-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말씀 읽기 사무엘하 5:1-12

- 1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 이다
- 2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 3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 4 다윗이 나이가 삼십 세에 왕위에 올라 사십 년 동안 다스렸으며
- 5 헤브론에서 칠 년 육 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 6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 7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 8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길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 9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 10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 11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 12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¹⁶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본문 배경

드디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2절). 이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3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왕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7년 반 동안은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33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4~5절).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예루살렘을 세우고 나라를 더욱 강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강성함은 나라의 부강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에 있었습니다(10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윗은 두로 왕 히람을 통하여 다윗의 왕궁을 건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온 이스라엘

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관찰

1 다윗은 몇 살에, 어디에서 왕이 되었나요? (3-4절)

답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해설 다윗의 인생은 사무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실하게 양을 치던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을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스스로 왕좌에 앉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찾아와 왕이 되어 달라고 간청하자 다윗은 서른 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 40년간 왕좌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2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무엇인가요? (7절)

답 시온 성을 점령했습니다.

해설 다윗의 인생 목적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왕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7절). ‘시온’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 위치보다 영적인 위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땅이 여부스 사람들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자신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말씀 적용

1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조금했지만 가장 좋은 타이밍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학교, 가정, 직장 등 삶의 자리 중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할 곳은 어디인지 나눠 보세요.

말씀 암송

6-2 여호와여 주의 긍휼은

시편 40편 11절

이종윤

♩. = 65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시편 사십편 십일절 말씀 아멘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엇인가를 빨리 이루기 위해 조금해하지 않게 하소서. 다만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점점 강성해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